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곽 정 식**

차 례

- | | |
|--------------------------|------------------------|
| I. 들어가기 | 2. 인물 형상에서의 수용 양상 |
| II.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 양상 | III. 〈수호전〉 수용의 소설사적 의의 |
| 1. 삽화의 수용 양상 | IV. 마무리 |

국문초록

활자본 고소설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주된 갈래로서 舊作과 改作, 新作의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었는데, 新作 가운데는 역사적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작품에서 기왕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국소설 〈수호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삽화 위주의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수호전〉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아울러 활자본 고소설에서 〈수호전〉의 수용이 갖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소설사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호전> 제22회에서 제30회까지의 武松 이야기를 번역, 편집해서 개별 작품으로 나온 것이 <타호무송>이며, <홍장군전>은 <수호전>의 무송 이야기와 함께 제2회, 제3회에 나오는 일부 삽화까지 번안의 형태로 수용하였다. 또 <한씨보응록>은 <수호전> 제21회와 제37회의 일부 삽화를 수용한 데다 <홍장군전>과 마찬가지로 <수호전>에 자주 등장하는 姦通 모티프까지 차용하였으며, <원두표실기> 또한 무송 이야기를 수용한 <홍장군전>의 전반부를 그대로 모방, 답습하였다. 이와 같은 삽화의 수용과 함께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호전> 호한의 인물 형상을 그대로 모방, 답습함으로써 홍윤성, 한명회, 원두표 등을 극히 긍정적인 인물로 개조하였다. 이와 같은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은 과거 <수호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던 도덕적 관점을 극복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호전> 호한들의 崇力思想 혹은 尙武思想을 본받음으로써 不義한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1930년대 洪命憲의 장편역사소설 <임궫정>의 출현에 선행 작품으로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주제어 : 활자본 고소설, <수호전>, 수용 양상, 소설사적 의의, 일제 강점기

I. 들어가기

이 연구는 활자본 고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소설 <수호전>의 수용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활자본 고소설은 1910년대에 등장하여 1930년대까지 활발하게 출판, 유통되었고, 독서층에서 가장 폭넓게 읽혀졌던 것으로 해방 후에도 얼마간 그 명맥을 유

지하였다.¹⁾ 우리 문학사에서 1910년대는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바, 1920년대는 이미 근대문학으로의 결정적 전환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고, 1930년대는 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기였다. 이와 같은 문학사적 전환기에 고소설의 출판과 창작이 성행하여 널리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대체로 활자본을 방각본이나 필사본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오랫동안 활기를 띠지 못하였으며, 다만 몇 차례 목록 작성과 서지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런데 이 같은 일제 강점기의 몇몇 활자본 고소설 작품이 중국소설 <수호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몇 차례 지적되어 왔다. 최원식은 <홍장군전>에서, 홍윤성이 형의 원수를 갚은 후 귀양살이를 하다가 뒤에 산에 들어가 숯장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데서 <수호전>의 武松 이야기를 거의 번안하다시피 하였다고 하고, 또 <한씨보응록>은 한명회가 강릉 경포대에서 여덟 장사를 만나 결의하는 장면이 <수호전>에서 宋江·戴宗·李逵가 강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거간주인 張巡이 생선을 팔지 않자 이규와 싸우는 장면을 그대로 따왔다고 하였다.³⁾ 이에 대해서 권순궁은 <홍장군전>에 수용되어 있는 <수호전>의 무송 이야기를 義賊 전승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고,⁴⁾

1) 安自山, 『조선문학사』, 韓一書店, 1922, 128쪽. 金基鎭, 大衆小說論, 『東亞日報』, 1929. 4. 14~4. 20 참조.

2) 이능우, 「古代小說 舊活版本 調査目錄」, 『古小說研究』, 선명문화사, 1973. 269-306쪽. 우쾌제,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판 및 연구현황 검토」,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113-143쪽. 권순궁,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의 존재양상과 그 특성」, 『애산학보』 28, 애산학회, 2003, 157-180쪽.

3)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160-170쪽 참조. 광정식, 「<홍장군전>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405-432쪽. 광정식, 「<한씨보응록>의 형성과정과 소설사적 의의」,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111-135쪽.

곽정식은 <수호전>의 일부 내용을 번역, 편집하여 개별 작품으로 나온 것이 <타호무송>이라 하고, 이 작품이 <홍장군전>의 출현에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한씨보응록>은 <홍장군전>에 이어 <수호전>의 일부 삽화를 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논의를 통해 활자본 고소설에서 <수호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유형이나 作品群이 가지는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다루어졌거나, 아니면 개별 작품의 창작 방법이나 형성 과정에 국한되어 이루어짐으로써 단편적, 피상적인 이해에 그쳐 건강부회의 혐의가 없지 않은 데다 작품 사이의 관련성 및 소설사적 전망을 통시적 관점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打虎武松>을 비롯한 일군의 활자본 고소설 작품이 <수호전>의 삽화 위주의 서사구조와 인물 형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아울러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이 소설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다만 <수호전>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우리 고소설 작품에 흔히 보이는 중국소설의 수용 방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Ⅱ.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 양상

1. 삽화의 수용 양상

<수호전> 판본의 변천 과정은 대체로 原本, 郭本(100회본), 簡本(115

4)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67-72쪽 참조.

회본), 全本(120회본), 金聖嘆本(70회본) 등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이들 모두는 전체 이야기가 삽화 위주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으며 章回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호전>의 고사는 본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宋史綱目>, <宣和有事> 등에서 淮陽 지방을 어지럽힌 宋江 등 36인에 관한 실제 사적을 일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점차 부연되어 민간에서 전설화되었고, 宋·元代에 들어서는 話本과 雜劇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元末·明初에는 그 고사가 확대되어 이미 소설의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하여 羅貫中이라는 작가가 상상력과 창작력을 동원하여 그 결구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허다한 단편 고사를 합치어 장편의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 <수호전> 원본이다.⁵⁾ 이로 보면, <수호전>의 전체 이야기가 독립적 성격을 띤 여러 개의 토막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은 기존의 설화, 화본, 잡극 등으로 유전되던 단편적인 여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편집, 정리하여 결구한 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며, 삽화 위주의 서사구조는 곧 작품의 성립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활자본 고소설 가운데 <打虎武松>, <洪將軍傳>, <韓氏報應錄>과 <元斗杓實記> 등에서 <수호전>을 부분적으로 모방, 답습하거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차츰 밝혀지겠거니와, 우선 이들 작품 역시 <수호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양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어 편집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타호무송>은 1918년 廣益書館에서 高敬相을 ‘編輯兼發行者’로 하여 간행되었고, <홍장군전>과 <한씨보응록>은 五車書廠에서 李海朝의 ‘特別編輯’으로 1918년에 간행되었다. <원두표실기>는 1930년 太華書館에서 朴堧杓를 ‘著者’로 하여 간행하였으나, 기실 작품 전반부의 허구적인 이야기는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의 삽화를 그대로 모방,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서두부와 결말부는 역사적 사실의 단편적인 수용과 함께 다양한 설화적 전승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서 이루어졌다. 이와

5) 이혜순, 『수호전 연구』, 정음사, 1985, 9-26쪽 참조.

같은 창작 방법을 감안하면 朴垞構는 엄밀히 말해서, 著者 대신 編著者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⁶⁾ 또한 이들 작품은 반드시 <수호전>의 영향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공통적으로 삽화 위주의 장회 형식을 취하고 있어 <수호전>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 <타호무송> 8회, <홍장군전> 18회, <한씨보음록>은 20회로 되어 있으며, 각각 回次와 回目を 갖추고 있다. 다만 분량에서 단편을 벗어나지 못한 <원두표실기>는 성격이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개의 삽화로 전·후반부를 구성하고, 따로 回次와 回目を 부여하지 않은 대신 ××× ×××와 같은 문자표로 장회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장회 형식의 모방이나 답습에 이어 이들 작품은 또한 독립적 성격을 띠는 몇 개의 토막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바, 그것은 실존인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실존인물에 관한 일화, 야담, 야사와 함께 실존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전래 설화들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수호전>의 삽화를 모방, 답습하거나 변안의 형태로 수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호전>의 일부 삽화를 그대로 번역하는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작품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먼저 <타호무송>은 <수호전> 제22회에서 제30회까지에 나오는 武松 이야기를 무송을 주인공으로 하여 번역, 편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호무송>의 回目が <수호전>의 그것과 완전 일치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打虎武松>

데일회 황히군시진이손을머물고 경양장에서무송이범을치다

데이회 왕파가지물의탐헛야풍정을달니고 윤기바분흙을참지못헛야차

6) 활자본 고소설의 경우, 저자와 편자, 또는 발행자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으며, 특히 역사류소설은 그 창작 방법이 주로 편집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저작자로 확인된 13명 가운데 書籍商의 주인이 7명이나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31-49쪽 참조.

집에서야료한다

데슴회 왕파가계교로서문경을빠라먹고 음부가독약으로무대랑을죽이다

데스회 새를도적하야하구가상스를보내고 스름의머리로공양하야무이
가제스지니다

데오회 모야침딩주길에서인육을팔고 무도뒤십즈좌에서장청을만나다

데륙회 무송의위엄이안평척에진동하고 시은이의그로코활림을썩앗다

데칠회 시은이다시밍쥬도에서웃듬이되고 무송이취하야장문신을썩리다

데팔회 시은이세번죽을죄인갓친옥에드러가고 무송이비운포에서크게
들네다

데구회 장도감이피를원양루에뿌리고 무송이밤에성을너머도망한다

<水滸誌>

第22回 橫海郡柴進留賓 景陽岡武松打虎

第23回 王婆貪賂說風情 鄆哥不忿鬧茶肆

第24回 王婆計啜西門慶 淫婦藥鴆武大郎

第25回 偷骨殖何九送喪 供人頭武二設祭

第26回 母夜叉孟州道賣人肉 武都頭十字坡遇張青

第27回 武松威震安平寨 施恩義奪快活林

第28回 施恩重霸孟州道 武松醉打蔣門神

第29回 施恩三人死囚牢 武松大鬧飛雲浦

第30回 張都監血淺鴛鴦樓 武行者夜走蜈蚣山⁷⁾

<타호무송>의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무송이 宋江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景陽岡에서 맨주먹으로 범을 쳐 죽였다는 것이고, 다음은 兄嫂인 潘金蓮과 西門慶의 간통 및 이들에 대한 무송의 복수가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끝으로 무송이 快活林에서 施恩이라는 사람의 주점을 빼앗은 蔣忠을 쫓아내고, 이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張都監 등을 죽여 원수를 갚았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武俠譚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1회와 제9회, 즉 서두부와 결말부에서 적지 않게 생략과 변경이 이루어졌다. 우선 서두부는 그回目

7) 박재연 校註, 『수호지』, 이회문화사, 2001, 2-3쪽.

을 <수호전> 제22회와 동일하게 사용하되 무송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수호전> 제21회의 내용 일부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내용을 새롭게 편집하는 가운데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결말부는 <수호전> 제30회의 내용을 적지 않게 축약한 것인 데도 回目は <수호전> 제30회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타호무송>은 <수호전>의 삽화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생략과 편집을 통해 독립적인 작품으로 성립되었다.⁸⁾

<홍장군전> 역시 <타호무송>과 마찬가지로 <수호전>의 好漢 武松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겠다. 일찍이 金台俊은 “懷仁縣의 壯士 <洪允成傳>은 세조 때의 명장 洪允成의 實記인데 거기다가 <水滸傳> 23회부터 32회까지 武松의 兄 원수 冑은 이 이야기로 補綴하여 일운 것이니 梁山泊을 嶺南 梁山郡으로 하고 舞臺를 조선에 옮긴 것은 奇妙하다.”⁹⁾고 하여 <수호전>과의 관련성을 주장하였거니와, 실제로 홍윤성이 太萬石과 간통한 兄嫂 薛氏女를 죽여 兄 大成的 원수를 갚고, 그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는 전반부의 이야기는 <수호전>과 <타호무송>에서 武松이 西門慶과 간통한 형수 潘金蓮을 죽여 兄 武大의 원수를 갚고 孟州로 유배가는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 답습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그와 같은 송사 사건의 처벌과정에서, 懷仁縣의 현감이 홍윤성의 義氣를 아껴 죄명을 가볍게 하여 감영에 보고함으로써 홍윤성을 유배하는 것으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수호전> 제26회에서, 陽穀縣의 현령이 무송의 의리를 보살피고 싶어 東平府에 면죄를 청하는 편지를 쓰고, 동평부 또한 무송을 크게 동정하여 양곡현의 조서를 더욱 가볍게 고쳐 조정의 선처를 당부함으로써 무송이 참형을 면하고 대신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그대로 일치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충실히 모방, 답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홍윤성

8) 광정식, 「<홍장군전>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405-432쪽 참조.

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94쪽.

이梁山에 귀양 가서 구차함이 없이 지내던 중 本邑 장교 昔春鳳의 호의로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張海根이란 노인을 만나 주점 주인 李春達의 부당한 처사를 전해들은 후 그를 쳐 죽이고 노인 부녀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역시 <수호전> 제2회에서, 魯達이 史進과 李忠을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갔다가 주점에서 翠蓮 부녀를 만나 억울한 사정을 듣고는 여비를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을 괴롭힌 불량한 富者白丁 鄭大官을 때려죽인 이야기¹⁰⁾를 그대로 모방한 것에 다름이 없으며, 홍윤성이 주점 주인을 때려죽인 후 석춘봉의 권유로 淸道 槐花村에 사는 昔의 처남 張文煥에게 피신해 있던 중 소문을 탐지하기 위해 밀양읍에 들렀다가 우연히 장씨 부녀를 만나 후대를 받았다는 이야기 역시 <수호전> 제3회에서 魯達이 鄭大官을 때려죽인 후 雁門縣으로 피신해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翠蓮 부녀를 만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얼마간 피신해 있었다는 이야기¹¹⁾와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수호전> 삽화의 수용은 <한씨보응록>에서도 살필 수 있다. 우선 <한씨보응록> 제12회는 한명회를 비롯한 9인의 好漢들이 경포대에서 會盟하던 중 한명회가 안주로 海物을 청하자 楊汀이 취중에 생선을 사러 나갔다가 어부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이때 수영에 능한 崔致運에 이끌려 물속에 들어가 거의 죽게 된 것을 崔潤이 사정하여 구해내고 뒤에 崔致運도 한명회와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수호전> 제37회에서, 宋江이 江州에서 戴宗·李逵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생선탕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규가 생선을 얻어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주인이 오기 전에는 생선을 팔지 않겠다는 어부들과 싸움을 벌여 漁具를 마구 부수고 잡은 생선을 모두 달아나게 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는데, 주인 張順이 이규를 붙잡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지켜 본 송강과 대종이 사정하여 이규를 구하

10) 박재연 校註, 앞의 책, 20-27쪽.

11) 박재연 校註, 앞의 책, 27-33쪽.

고, 장순도 그들과 뜻을 같이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번안해 놓은 것에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또 <한씨보응록> 제16회에서,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처음 만나는 장면 역시 <수호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한명회가 기생 楊波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양파를 찾아와 술을 마시던 수양대군이 측간으로 가기 위해 어두운 방을 지나다가 한명회를 밟아 큰 소란이 벌어졌으나, 마침 수양대군과 함께 있던 權攀이 한명회를 알아보고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수호전> 제21회에서, 宋江이 閻婆惜을 죽이고 柴進에게로 피신하러 왔다가 그 곳에서 우연히 무송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송강이 술에 취하여 측간으로 가기 위해 東廊 아래를 지나다가 마침 학질을 앓고 있던 무송이 화상에 숯불을 피워 놓고 불을 쪼고 있는 것을 모르고 화상을 밟음으로써 뜨거운 불에 놀란 무송과 송강 사이에 일대 소란이 벌어졌으나, 시진의 소개로 무송이 송강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呼兄呼弟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¹²⁾ 이 같은 두 삽화 사이의 친연성을 감안할 때, <수호전>에 자주 등장하는 姦通 모티프 역시 <한씨보응록>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山賊 吳雲林이 良家 여인을 강점한 것은 <수호지> 제4회와 제5회에 나오는, 山上大王 周通이 劉太公의 딸을 강제로 취한 것과 방불하며, 또 <한씨보응록> 제5회에서 제7회까지에 나오는, 吳雲林의 처와 韓明澮가 私通하고, 오운림이 사통한 여자를 무참히 죽이는 장면은 <수호지> 제20회에서 宋江의 少妾 閻婆惜과 張文遠, 제23회에서 제25회까지에 나오는 武松의 형 武大의 처 潘金蓮과 돈 많은 장사꾼 西門慶, 제44회에서 楊雄의 처 潘巧雲과 裴如海, 그리고 제61회에서 大名府의 부호인 盧俊義의 처와 李固 사이의 私通 혹은 姦通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12)곽정식, 「<한씨보응록>의 형성과정과 소설사적 의의」,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113-116쪽 참조.

한편 <원두표실기>는 <홍장군전>을 통해 <수호전>을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두표실기>의 전반부는 원두표가 서당에서 스승을 괴롭히는 빗쟁이를 쳐 죽이고 忠州에서 체포되어 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異人에게서 일곱 번 살인할 운수를 타고났으나 장차 정승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한꺼번에 6-7인의 옥졸을 때려죽인 후 梁山·密陽·永同 등지로 도망 다니는 이야기로, 이는 곧 <홍장군전>의 홍윤성이 형의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梁山·密陽·永同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도망 다니는 전반부의 이야기에 그대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홍윤성이 梁山에 귀양 가서 昔春鳳의 호의로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張海根이란 노인을 만나 주점 주인 李春達의 부당한 처사를 전해들은 후 이춘달을 쳐 죽이고 노인 부녀를 구원했다고 하고, 또 소문을 탐지하기 위해 密陽邑에 들렀다가 우연히 장씨 부녀를 만나 후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호전> 제2회와 제3회를 모방, 답습한 것으로, 앞에서 이미 살핀 바 있거니와, <원두표실기>에서는 원두표가 梁山에서 本邑 장교 金春鳳과 함께 술을 마시러 주점에 갔다가 딸을 찾으려고 안동에서 온 鄭元根이라는 노인을 만나 주점 주인 이춘삼의 부당한 처사를 전해듣고 즉시 정노인 부녀를 도망하게 한 후 이춘삼을 쳐 죽였다고 하고, 이어서 원두표가 고향으로 가던 중 밀양읍에 들렀다가 자신을 잡으라는 방이 걸린 것을 목격하고, 우연히 그곳에서 정원근을 만나 환대를 받고 은신하였다고 함으로써 <홍장군전>의 내용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이처럼 <원두표실기>가 <홍장군전>을 통해 <수호전>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표제를 통해서도 짐작되거니와, <홍장군전>이 표제에서 ‘義勇雙全’이라 한 것을 본받아 <원두표실기>에서는 ‘義勇無雙’이라고 하였다.

2. 인물 형상에서의 수용 양상

<수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불의한 자를 징치하고 처단하

는 이른바 영웅 호한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거니와, <수호전>에서의 영웅의 개념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殺人不吃眼者)이다. 게다가 그들은 대개 신장이 7-8척이나 되는 大漢으로, 큰 주발에 술 마시고 커다란 고깃덩어리 먹는 것(飲大碗酒 食大塊肉)을 제일 중시하는 자들이다.¹³⁾

쥬비(酒保) 로데할임을 보고 손 씻고 무려 왈, “데할은 술을 얼마나 가져오라 흥느릿가?” 로달 왈, “몬져 네 통 술을 가져오라. 쥬비 무르되, ”무슴 안쥬를 가져오리잇가?” 로달 왈, “잇는 것을 다 가져올지니 무려 무엇흥리오.”¹⁴⁾

림춘이 …눈을 붉아 핑하다가 보니 흥낫 쥬덤이 잇거늘 발을 들고 드러가니 쥬비 문왈, “직관은 술을 얼마나 먹고져 흥느뇨?” 림춘 왈, “몬져 두 통 술을 가져오라.” 쥬비 술을 가져 탁자에 노코 거르니 림춘이 문왈, “무슴 안쥬할 것이 잇느뇨?” 쥬비 올, “우육과 거우며 연게 잇노라.” 림춘 왈, “몬져 두 근 우육을 써호러 오라.”¹⁵⁾

무숨은 신장이 팔척이오 상되 당당히 일신에 천빅 근 기력을 가졌스니 만일 그러치 아니면 경양강에서 엇지 범을 쳐 잡앗스리오¹⁶⁾

나는 술이 업스면 지죄 업고 술을 취하면 지조를 발흥느니 이럼으로 일분 취하면 일분 기력이 나고 십분 취하면 십분 기력이 나느니 만일 대취한 후에 기력과 담략이 나지 아니하면 경양강상에 대충을 어이 쳐 잡앗스리오 취한 후는 치기도 쉽고 손에 힘도 올을 형세 더흥지라 엇지 취한 것을 넘려흥리오¹⁷⁾

13) 이혜순, 앞의 책, 59쪽.

14)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2회, 20-21쪽.

15)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10회, 72쪽.

16)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23회, 166쪽.

17)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28회, 218쪽.

이처럼 <수호전>의 호한들은 대개 술을 좋아하여 술고래로 일컫는 바, 무송은 애초 大醉하여 범을 주먹으로 때려잡았을 뿐 아니라, 4~5일에서 더러는 수십 일 동안 술을 마시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더구나 그는 술이 없으면 재주를 부릴 수 없고 술이 취하여야 재주를 부릴 수 있다고 했는데, 一分 취하면 一分의 기력이 솟고 十分 취하면 十分의 기력이 솟는다고 하여, 결국 大醉한 뒤에야 氣力과 膽略을 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魯達은 한 손으로 버드나무를 뿌리째 뽑음으로써 힘을 과시하거나, 무게가 60근이나 되는 鐵禪杖과 戒刀를 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징치한다.

(로달이) 좌슈로 록양나무를 붓들고 허리를 펴니 그 버들이 썩리 아
울나 싸지거늘 모든 사람이 절하여 왈, “스부는 범인이 아니로다. 만일
천빅 근 기력 가진 라한이 아니면 엇지 그 나무를 싸히리오!”¹⁸⁾

노달이 방중에 드러가 선장을 내여오니 모다 보견대 기리 오척은 흥
고 무게는 룡십근이 되느니라 중인이 칭찬 왈, “만일 두 팔에 물소의 힘
을 가지지 못했으면 엇지 더 선장을 쓰리오!”¹⁹⁾

이리하여 <수호전>의 등장인물은 거의 행동형으로 형상화되고 있거니와, 그들의 행동은 강한 자를 치고 약한 사람을 구함으로써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사냥꾼 李吉이 少華山에 도적이 일어나 민가를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史進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 대비책을 의논하고, 산적들이 쳐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賊魁 陳達을 삼지창을 날려 쓰러뜨렸으며, 주점에서 술 마시던 魯達은 翠蓮의 불행을 알게 되자 즉시 여비를 마련해 주고 翠蓮 부녀를 괴롭힌 백정 陳關西를 주먹으로 때려

18)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6회, 46쪽.

19)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6회, 46쪽.

죽인다. 뿐만 아니라 瓦管寺라는 절이 飛天夜叉라 불리는 邱小乙과 生鐵佛을 자처하는 催道成이란 자가 양가집 부녀자를 납치해서 희롱하는 악명 높은 소굴임을 알게 되자 즉시 史進와 함께 쳐들어가 도적들을 때려 죽이고 불을 질러 완전히 태워버렸다. 劉唐에게서 유수의 고급 관리인 梁世杰이 장인인 東京太師 蔡京에게 10만 냥의 생일 선물을 보내는 일을 전해 듣자 晁蓋, 吳用은 즉시 사람을 모으고 계책을 세워 재물을 빼앗기 위한 행동을 전개한다. 유배지에서 林沖은 임시 거처로 정해진 초가집이 무너지자 밤에 산신당에서 자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깨어나 陸虞候(謙)가 간수와 高太尉의 식객인 부안과 짜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을 알고는 즉시 비호같이 날아가 창으로 간수와 부안을 찔러죽이고 날카로운 칼로 육우후의 심장을 도려내었으며, 송강은 형제의 어려움을 알게 되자 즉시 밀고하여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무송은 형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곧 계략을 짜내어 형의 원수를 갚고, 快活林에서 施恩으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던 주점을 蔣門神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즉시 그를 때려잡으러 가겠다고 하였으며, 술 먹고 소란을 피운다고 孔亮이 나무라자 즉시 발로 밟고 주먹으로 마구 때리다가 아예 몸통을 번쩍 들어 계곡으로 던져버렸다. 이러한 호한들의 행동성은 그들의 타고난 性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 같은 <수호전> 호한들의 인물 형상을 우리는 <타호무송>을 비롯한 일부 활자본 고소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호전> 제22회에서 제30회까지에 나오는 武松 이야기를 무송을 주인공으로 하여 번역, 편집한 <타호무송>은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홍장군전>, <한씨보용록>, <원두표실기>의 경우, 각기 실존인물 洪允成(1425~1475), 韓明澮(1415~1487), 元斗杓(1593~1664)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허구적으로 꾸며낸 것인 만큼, 실존인물을 <수호전> 호한들의 인물 형상

20)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27회, 210쪽. “무송이 평소에 성정이 텅하의 강흔 놈을 치고 약한 사름을 구하고자 호는지라”

과 비교해 보면, 이들 작품에 미친 <수호전>의 영향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洪允成은 용모가 雄偉하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젊어서는 가난하였는데 힘써 배워서 급제하니,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응결로 기대하였다. 世祖를 만나게 되자, 총애하여 돌봄이 매우 융숭하였고, 홍윤성이 본시 빈궁하였음을 알고 많은 良田을 내려 주었다. 홍윤성이 재화를 늘리는 데 힘써 鴻山農莊에 쌓인 곡식은 鋸萬이었고, 奴僕은 세도를 믿고 함부로 방자하여서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혹 杖殺하기도 하였다. 세조가 溫陽에 거둥하여 목욕할 제, 士族의 부인 尹氏가 上言하여, 그 지아버가 홍윤성의 노복에게 살해되었음을 호소하니, 명하여 有司에 국문하게 하여, 그 노복을 輓刑하고 홍윤성은 국문하지 않았다. 司憲府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홍윤성의 거칠고 狂妄한 태도와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형상을 聖鑑은 洞照하소서.” 하니, 당시에 이르기를, “그의 잘못을 똑바로 맞추었다.”고 하였다. 侍妾·奴僕이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면 문득 용서하지 않고, 弓劍을 쓰기까지 하였으며, 妻 南氏에게 자식이 없어서 같은 고을의 士族 金自謀의 딸을 강제로 취하여 장가들었다.²¹⁾

韓明澮는 성격이 煩雜한 것을 좋아하고 夸大하기를 기뻐하며, 財物을 탐하고 色을 즐겨서, 田民과 寶貨 등의 뇌물이 잇달았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姬妾을 많이 두어, 그 豪富함이 一時에 떨쳤다. 여러 번 使臣으로 명나라의 서울에 갔었는데, 늙은 宦者 鄭同에게 아부하여, 많이 가지고 간 뇌물로써 사사로이 황제에게 바쳤으나, 副使가 감히 말리지 못하였다. 晩年에 權勢가 이미 떠나자, 賓客이 이르지 않으니, 愀然히 적막한 탄식을 하곤 하였다. 비록 여러 번 諫官이 論駁하는 바가 있었으나, 소박하고 솔직하여 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勳名을 保全할 수 있었다.²²⁾

21) 太白山史庫本, 『成宗實錄』 9책 59권, 6년(1475) 9월 8일 기사, 仁山府院君洪允成卒記.

22) 太白山史庫本, 『成宗實錄』 11책 209권, 18년(1487) 11월 14일 기사, 上黨府院君韓明澮卒記.

元斗杓는 白身の 신분으로 일어나 靖社의 복헌에 참여하여 갑자기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여러 차례 지방관을 맡으면서 자못 威風이 있었고, 일찍이 大司馬·大司徒가 되었을 적에도 직임을 잘 수행한다는 칭송이 있었다. 이에 앞서 두표가 역적 金自點과 공이 같은 사람으로 명망과 지위가 서로 엇비슷하여 각각 私黨을 세웠다. 당시 原黨·洛黨의 칭호가 있었는데 한때 조정의 진신들로 두 문하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다. 仁祖가 승하한 당초에 두표가 앞장서서 한 통의 상소를 진달해 權奸이 정권을 마음대로 주무른 죄를 논하였는데, 상소 가운데 이름을 숨겨 비록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기실은 자점을 가리킨 것이었다. 자점이 끝내 반역을 도모하다 삼족이 멸망한 것은 실로 두표가 빚어낸 만듦 일이었다. 신묘년(1651) 사이에 尹善道가 상소하여 재주는 많지만 덕이 없고 음험하여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다는 등의 말로 두표를 배척하였다. 말년에 드디어 정승에 제수하는 명을 받고 黃閣에 7년 동안 있었으나 정승으로서의 업적이 없었다. 성품이 영금하고 시기심이 많으며 거칠고 사나워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끝내 반드시 몰래 해친 뒤에야 그만두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두려워하였다.²³⁾

요컨대 홍윤성은 성질이 사납고 재물을 탐하여 농장에 쌓인 곡식이 鋸萬이었으며, 권세를 얻은 뒤에는 行誼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氣勢로써 사람을 능멸하고,²⁴⁾ 家奴를 놓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사헌부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세조는 그때마다 그를 靖難의 元勳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았다.²⁵⁾ 한명회 역시 財物을 탐하

23) 太白山史庫本, 『顯宗實錄』 36책 8권, 5년(1664) 6월 24일 기사, 左議政元斗杓卒記.

24) 『睿宗實錄』 6권, 1년(1469) 6월 27일 8번째 기사에서, “使臣이 중국에 가게 되면, 무릇 비단과 진귀한 물건을 구하지 않는 바가 없어, 심히 장사를 행함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몰랐는데, 홍윤성은 書畫와 酒器가 아니면 구하지 아니하여, 함께 동행한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꺼리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5) 자세한 내용은 『端宗實錄』 5권, 1년(1453) 3월 5일 2번째 기사, 『世祖實錄』 13권, 4년(1458) 7월 11일 1번째 기사, 7월 12일 1번째 기사, 7월 13일 1·2번째 기사 등을 참조할 것.

고 色을 즐겨 田民과 寶貨 등의 뇌물이 잇달았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姬妾을 많이 두어 그 豪富함이 一時에 떨쳤다고 하였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는 늙은 宦者에게 아부하여 많은 뇌물을 사사로이 황제에게 바쳤으나 副使가 감히 말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원두표 또한 사사로운 청탁에 官奴 夫妻를 杖殺할 만큼 성질이 거칠고 사나웠을 뿐 아니라,²⁶⁾ 성품이 엉큼하고 시기심이 많아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끝내 몰래 해친 뒤에야 그만두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두려워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적인 인물들이 <홍장군전>, <한씨보용록>, <원두표실기>에서는 ‘義勇無雙’ 혹은 ‘義勇雙全’과 같은 표제에서 짐작되듯이, 한결같이 忠勇과 義氣·義理의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바, 여기에 <수호전> 호한들의 인물 형상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홍운성은 “구척 현양호 몸”²⁷⁾에 “용력이 비상하야 디적하리 업스”²⁸⁾고, ‘용팅이 과인하야 날넉기 비호갓호며 의괴 당당하느’²⁹⁾ 인물에 특히 술을 좋아한다고 하고,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160斤 鐵如意椎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그려놓았다.

(운성이) 마을을 진정치 못하고 주덤마다 드러가 술을 사 마시며 서서히 흥하니 공인들은 료성을 위하는 데하고 술을 만히 권하야 그 취도 흥기만 기덕리더라.³⁰⁾

잔술은 랑에 차지 은이하니 조흔 술로 두어 통 가져오라 하니 주파 | 우셔 왈 홀노 두 통 술은 무엇하시랴는넛가 가져 가시려 하면 넉집 하인 식이여 보넉드리오리다 … 한 통 술을 한 번에 마신 후 손치를 저로

26) 『仁祖實錄』 인조 2년 8월 19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33책 637쪽. 靈光郡守元斗杓, 曾於春間, 領軍往來, 路過井邑, 遂因軍官之私囑, 杖殺官奴之夫妻.

27) <홍장군전>,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2, 은하출판사, 1984, 2쪽.

28) <홍장군전>, 앞의 책, 8쪽.

29) <홍장군전>, 앞의 책, 2쪽.

30) <홍장군전>, 앞의 책, 66쪽.

집어 맛보니 그 향기로운 것이 히롭지 안인지라 쏘 한 통을 마시고 산
척로 안주하니 주덤 하인이 놀나 왈 흥 통 술을 칠팔인이 마시여도 대
취허거늘 엇지 두 통 술을 조금도 남기지 안이하고 몰슈이 자시느릿가
윤성이 소왈 나는 술을 독으로 마시고 고기 슈십 근 안주를 흥느니 이
만 술이 엇지 만타 히리요³¹⁾

윤성이 종릭 거절키 미은히야 의관을 정제하고 춘봉과 함께 주점을
차자가니 큰독에 식로 익은 술을 가득 담아 어름을 칩와 노앗난대 맛이
아람다와 한 존 두 잔 마시는 것이라서 부지중 사오십빅에 지느 얼골에
홍흔이 돌니고 전신이 황홀흔지라³²⁾

아울러 그는 산중에서 猛虎를 쳐 죽이고 기생 牧丹을 구원하였으며,
모란이 청혼을 해오자 호한임을 자부하여 거절하고 평생에 구구한 행복
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윤성이 급히 언덕 우에 올라 두로 숲혀보니 과연 빅익대호 | 스름을
몰어 등에 메이고 멀지 아니케 지느가거늘 윤성이 분긔충턴히야 급히
…범의 꼬리를 잡아 낙구치니 그 범이 놀느 물엇던 스름을 더지더니 압
발을 들고 주홍갓흔 입을 벌여 윤성의 압으로 달녀들거늘 윤성이 대호
일성에 철여의로 범의 가슴을 치니 범이 압발로 여의를 빗아 물니치고
일향 덤뵈느니라 윤성이 여의를 싸에 더지고 몸을 날녀 공중에 소스며
쭈먹으로 범의 랑미간을 치니 범의 두골이 썩여져 두 눈이 소스며 날썩
거늘 윤성이 다시 여의를 집어 그 허리를 검쳐 밍타히니 범이 괴이흔
소리 흥번에 싸에 엽드려져 죽느니라³³⁾

윤성이 탄식왈 느의 뜻은 그디도 아느 바이라 평생에 구구흔 행복을
취치 안이허거날 모란이 즈긔의 생명 구히야 줌을 감격히 생각히야 나
에게 출가함을 증청히니 제 사정은 용혹무피느 닌가 썩를 민느지 못하
야 이곳서 고생히난고로 그갓치 부당한 말을 듯느도다 닌 찰하리 총각

31) <홍장군전>, 앞의 책, 74쪽.

32) <홍장군전>, 앞의 책, 80-81쪽.

33) <홍장군전>, 앞의 책, 42쪽.

으로 늙어죽을지언정 엇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일로 인연하야 성취함을
요청으로 알니오 도흔 말로 그 불가함을 말하얏스느 스스로 그러흔 능
모 당흔 일을 생각건대 죽연 심스ㅣ 좇치 모스도다³⁴⁾

이렇게 볼 때, 홍윤성은 <수호전>에서 八尺의身長과 千百斤의 기력
을 지니고 大醉한 뒤에야 氣力과 膽略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武松은 물
론, 한 손으로 버드나무를 뿌리째 뽑고 무게가 60斤이나 되는 鐵禪杖과
戒刀를 지니고 다니면서 불의한 자들을 징치하는 魯達의 인물 형상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實錄과 野史에서 홍윤성이 같은 마을에 사는
士族의 딸을 강제로 취했다거나,³⁵⁾ 都元帥가 되어 湖南에 갔다가 미모
의 부잣집 딸을 첩으로 삼았다³⁶⁾고 한 것과는 달리, <홍장군전>에서는
스스로 호한임을 자부하는 가운데 모란의 청혼을 부당한 일이라 하여
거절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한 것으로 여겨 부끄러워하는 인물로 그려놓
음으로써, 女色을 멀리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수호전>의 호한들을 그
대로 본받았다고 하겠다.³⁷⁾

한편 <한씨보응록>은 우선 韓明澮의 시조 韓蘭에 대해, “려력이 과인
하야 능히 범을 빈손으로 잡는”³⁸⁾다고 하였으며, 또 팔도에 두루 놀아
호한을 사귀고자 하는 인물이라 하여 한명회를 비롯한 9인의 호한들이
경포대에서 會盟하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술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술 마

34) <홍장군전>, 앞의 책, 50쪽.

35) 太白山史庫本『成宗實錄』9책 59권, 6년(1475) 9월 8일 기사. 仁山府院君洪允成 卒記 참조.

36) <洪允成都元帥出湖南>, 『五山說林草藁』, 民族文化推進黨 편, 1971. 『大東野乘』 2, 521-522쪽 참조.

37) <수호전>에서 宋江은 好色하는 것은 好漢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는데, 그것은 여색을 영웅의 길을 막는 방해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여색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한다. 이혜순, 앞의 책, 225쪽 참조.

38) <한씨보응록>,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12, 아세아문화사, 1976, 12쪽.

시는 것으로 그려놓았다.

“우리 팔인이 스승지교를 밋져 밋일 이갓치 술이나 마시고 활이나 쏘
더니”³⁹⁾

“날로 술 먹고 춤 추고 노리헝기로 종스헝노니”⁴⁰⁾

“큰 독에 술을 기우려 서로 권헝며 마시며 즐길식”⁴¹⁾

“우리 밋일 경포디에 모여 술 먹는 것은 그디들도 웅당 짐작홀지
오”⁴²⁾

이어서 한명회가 千金을 내어 기생 楊波로 하여금 贖身하게 하고, 자신은 貪色하지 않아 色界에 침혹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록에서 한명회가 財物을 탐하고 色을 즐겨 田民과 寶貨 등의 뇌물이 잇달았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姬妾을 많이 두어 그 豪富함이 一時에 떨쳤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⁴³⁾ <수호전> 제2회에서 魯達이 금을 가지고 金翠蓮을 구제한 것과 상통하는 바, 이로써 俠義를 좋아하고 色을 멀리하는 <수호전> 호한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겠다.

한명회 팔도 강산을 주류하야 녀식을 만히 보앗스나 일즉이 식계에 침혹함이 업스니 ... 천금을 너여 낭파를 주어 지하 양디션에게 속신흐라 헝고 인헝야 낭파의 옥수를 잡아 왓 나느 탐식헝는 무리 온이라 평싱의 협의를 조화함으로 그디의 고향에 싸짐을 익석헝야 구제함이니⁴⁴⁾

다음으로 <원두표실기>를 보면, 이 또한 원두표를 “려력이 강대한 것은 물론이고 뜻이 크고 성질이 호협한 꽤남아”⁴⁵⁾라고 하고, 어린 나이에

39) <한씨보응록>, 앞의 책, 87쪽.

40) <한씨보응록>, 앞의 책, 87쪽.

41) <한씨보응록>, 앞의 책, 88-89쪽.

42) <한씨보응록>, 앞의 책, 97쪽.

43) 太白山史庫本, 『成宗實錄』 11책 209권, 18년(1487) 11월 14일 기사, 上黨府院君 韓明澮卒記

44) <한씨보응록>, 앞의 책, 137쪽.

귀신을 모시는 당집을 산산이 부숴버려 사람들이 대경실색했다거나,⁴⁶⁾ 한 주먹으로 獄卒 6-7인을 일시에 타살했다거나 하였다.⁴⁷⁾ 또 한 통 술을 7-8인이 마셔도 大醉하는데, 그는 혼자서 두 통 술을 남기지 않고 마셨다거나,⁴⁸⁾ 술을 독으로 마시고 고기 수십 근을 안주로 했다⁴⁹⁾거나 함으로써, <수호전> 호한의 인물 형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원두표가 永同에 사는 당숙을 찾아갈 때에 신분을 감추려고 喪制服으로 변장한 것⁵⁰⁾ 역시 <수호전> 제31회에서 무송이 寶珠寺의 魯達과 楊志를 찾아갈 때에 관인들의 눈을 피해 行脚僧으로 변장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수호전> 수용의 소설사적 의의

앞에서 <타호무송> · <홍장군전> · <한씨보용록> · <원두표실기>를 중심으로 <수호전>의 수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거니와, 이제 이와 같은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이 소설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수호전>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전래되어 유학자와 문인들에게서 혹평과 격찬을 동시에 받으며 독서계를 풍미하였다.⁵¹⁾ 뿐만 아니

45) <원두표실기>,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고소설전집』 29, 은하출판사, 1쪽.

46) <원두표실기>, 앞의 책, 2쪽.

47) <원두표실기>, 앞의 책, 6쪽.

48) <원두표실기>, 앞의 책, 8쪽.

49) <원두표실기>, 앞의 책, 8쪽.

50) <원두표실기>, 앞의 책, 31쪽.

51) 許筠, 『惺所覆瓿稿』 <十掌之故>, 傳奇則水滸傳 金瓶梅 爲逸傳 不熟此傳者 保而襲揚 非飲徒也. <西遊錄跋>, 水滸則奸騙機巧 皆不足訓 而著于一人手 宜羅氏之三世啞也. 李植, 『澤堂集』 권15, 雜著, 散錄, 世傳 作水滸傳人 三代聾啞 受其報應 爲盜賊尊其書也 許筠朴燁等 好其書 以其賊將別名 各占爲號 以相譏 筠又作洪吉

라 일부 여성 독자층에도 번역 필사본으로 전사, 보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孝宗妃 仁宣王后 張氏(1618-1674)가 딸 淑明公主에게 보낸 諺簡(1652-1674)에서 <녹의인던>, <하북니장군던> 등과 함께 <슈호던>의 이름을 볼 수 있으며,⁵²⁾ 溫陽 鄭氏(1725-1799)가 1786년에서 1790년 사이에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玉駕再合奇緣>의 권15의 표지 안쪽에는 <통의슈호지>와 <성탄슈호지>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⁵³⁾ 또 完山 李氏가 1762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中國小說繪模本』의 서문에도 80여 종의 중국소설명과 함께 <水滸誌>, <後水滸誌>가 나열되어 있고, 洪義福(1794-1859)이 중국소설 <鏡花緣>을 번역하여 『第一奇諺』이라題한 책의 제1권 서두에서 세간에 전하는 <삼국지>, <서유기>, <슈호지> 등을 열람한 것으로 적고 있다.⁵⁴⁾ 그리고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판본에는 施耐庵撰, 金聖歎編의 <第五

同傳 以擬水滸 其徒徐羊甲沈友英等 躬蹈其行 一村壘粉 筠亦叛誅 此甚於龔啞之報也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5, <영처잡고>, 余嘗看水滸傳 其寫人情物態處 文心巧妙 可爲小說之魁 合號綠林董狐… 意者 耐庵以錦繡之才 有一塊冤憤疊鬱於中 發此無實之語 敘其平生罵世之心歟 成大中, 『靑城集』 권8, 장23, <書仇十州畫水滸軸後>, 水滸之徒 純於盜也 然羅貫中之獎之 殆居刺客之右 孔周爲政 羅必先誅 而書則滅絕之也 反乃盛行於世 又或圖畫其貌 照人耳目 有若曠惑者 然世教之賊 一至此哉 然彼亦爲警世作也人情 孰肯以父母生育之身 樂趨於盜賊之群哉 盖亦不得已也 飢寒之所迫也 文法之所逼也 感憤之所激也 技癢之所使也 沈載, 『松泉筆談』 권2, 愚按西遊記 水滸傳 文章機軸 稗書中大家數也 先輩或有發跡 於是書而成文章者 李用休, 『惠寶雜著』 권3, <書水滸傳後>, 水滸傳 非惟權謀機軸 文章實佳 李裕元, 『林下筆記』 권27, 李履翁晚秀 平生不知稗說爲何書 一日有人贈金聖歎所批水滸傳西遊記兩種 公一覽 大驚曰: 不圖此書 能具文字之變幻也 由是大變文體 李頤命, 『疎齋集』 권12, 漫錄, 至水於滸則極形容群盜猖獗橫行之狀 故明末流賊悉效此 其標立名稱以閻天王之類 則梁山泊玉麒麟九紋龍之遺法 其弊已明著也 李翼, 『星湖僊說類選』 권7, 下, 水滸傳者羅貫中所作…至流賊李自成作亂 其綽號兵術 不出水滸傳套中 余謂作視書者 其必有淫敵之心乎 등 참조.

52) 김일근, 『諺簡의 研究』, 건국대출판부, 1986, 자료 번호 56, 57, 104 참조.

53)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381쪽.

54) 정구복, 「<第一奇諺>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84, 73-100쪽.

才子書水滸傳>을 비롯하여 <水滸傳>, <繡像第五才子書>, <水滸誌>, <評論出像水滸傳>, <繪圖增像第五才子書水滸全書>, <繡像全圖水滸誌>, <評註圖像水滸傳> <評註增像水滸傳>, <評註繪圖水滸傳> 등 30여종이 있으며, <結水滸傳>, <繪像結水滸傳>, <結水滸全傳>, <蕩寇志>, <續水滸傳>, <繪圖蕩寇志演義>, <後五才子征四寇> 등 後書도 11종에 이르는데, 이들은 대체로 淸代의 것이라고 하였다.⁵⁵⁾ 또 방각본으로 현재 파리 동양어학교소장본(경판)과 김동욱소장본(안성판)이 있어 19세기에 들어 번역 활판본이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1913년 新文館에서 나온 <水滸誌>와 朝鮮書館에서 나온 <忠義水滸志>를 비롯하여 1916년 唯一書館에서 南宮楔이 발행한 <水滸志>와 匯東書館에서 高裕相이 발행한 <忠義小說水滸志前集> 등이 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번역 출판이 1950년 이후에는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져 오늘날 대략 30여종에 이르고 있다.⁵⁶⁾ 이와 같은 판본의 유입과 유통, 전사와 출판 등으로 볼 때, 과거의 일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호전>이 지속적으로 독자층의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호전>은 도적을 높이는 극히 불온한 내용 때문에 실제로 소설 작품의 창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몇몇 논자들이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수호전>의 영향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나,⁵⁷⁾ 소재면에서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李慧淳은 <홍길동전>을 작품 내용면에서 볼 때, 대체로 조선의 전통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외래 영향에 의한 것은 아

55) 민관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에 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8, 한국중국소설학회, 1998, 193-199쪽.

56) 민관동, 앞의 논문, 200-205쪽 참조.

57)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삼영사, 1983. 이여추,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4,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119-151쪽 등 참조.

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⁵⁸⁾ 단지 허균이 그 제재를 확대하여 반항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데는 혹시 수호전의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⁵⁹⁾고 하였다. 그런데 정작 허균 자신은 <수호전>을 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⁶⁰⁾

그렇다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나온 활자본 고소설에서 <수호전>이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또 <수호전>의 수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을 참고하기로 한다.

胡適은 <수호전>이 민간에서 유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서, 송말 異族이 침입하여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민중들은 어떤 영웅이 출현하여 중원을 회복시키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호걸들의 힘을 의지해서 이족의 지배를 물리치고자 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⁶¹⁾

송강의 행위에는 반드시 禮 아닌 禮와 義 아닌 義가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 이야기할 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⁶²⁾

<수호전>의 영웅의 사고는 행동에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력은 그들의 무예와 체력이 뛰어난데 기인된다. 그리하여 <수호전>에는 輕文重武, 즉 崇力思想이 지극히 농후하게 보이거니와, …… 바꾸어 말하면, 수호의 인물들의 행동력은 宋代의 士大夫들이 의논은 많고 成就是 별로 없었던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⁶³⁾

58) 이해순, 앞의 책, 266쪽.

59) 이해순, 앞의 책, 268쪽.

60) 許筠, 『惺所覆瓿藁』 卷13, <西遊錄跋>, “余得戲家說數十種 除三國 隋唐外 而兩漢 龔 齊魏 拙 五代 殘唐 率 北宋 略 水滸 則 姦 騙 機 巧 皆 不 足 訓 而 著 於 一 人 手 宜 羅 氏 之 三 世 啞 也.”

61) 胡適, 胡適文存 제1집, 水滸傳考證, 遠東圖書公司, 508-509쪽. 이해순, 앞의 책, 196쪽 재인용.

62) 郎瑛, 『七修類稿』 25, 이해순, 앞의 책, 19쪽에서 재인용.

63) 이해순, 앞의 책, 93쪽.

<수호전> 작자의 崇力輕文思想은 … 力의 인물을 창조한 이유는 아마도 시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소위 시대란 것은 徽宗 一代만이 아니고 송나라와 異族의 압제를 받던 元代 전반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宋代의 重文政策으로 武功이 일어나지 않았고, 金人이 南下하고 몽고가 이어 침략해 들어와 드디어 중원은 異族의 손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수호전>의 영웅들의 힘은 시대적 요구였던 것이다.⁶⁴⁾

요컨대, 이민족의 침입으로 억압과 수탈에 신음하던 민중들은 영웅이 출현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열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 崇力 혹은 尙武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서 <수호전>이 출현하였으며, 이후의 <수호전>에 대한 관심과 호응 역시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활자본 고소설에서 <수호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까닭은 결국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우선 항일의 수단으로 전국 도처에서 많은 인사들이 순국의 길을 택하였다. 금산군수 홍범식은 합병의 비보를 듣고 목매어 자결했고, 러시아 공사 이범진은 순종황제에게 올리는 서한과 2천5백 루블을 남겨놓고 자결했다. 진사 황현은 아편을 마시고 자결했으며, 망국의 소식을 듣고 술앞으로 연명하던 조장하는 한달만에 순국했다. 내시 반하경은 할복 자결하였고, 송주면은 강물에 몸을 던져 순국했다. 사간원 정언 이중언은 을사오적을 참할 것을 상소한 후 은거하던 중 단식 순국했으며, 훈련참정 정동식은 포고문과 토적문을 써놓고 자결 순국하였다. 의관 송익면이 자결 순국하였으며, 도살업을 하던 황돌쇠가 순국하는 등,⁶⁵⁾ 각기 신분과 계급은 달랐어도 나라 잃은 비통한 심정은 한가지였다.

64) 이해순, 앞의 책, 94쪽, 96쪽.

65)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6, 일제강점기, 세계철출판사, 1997, 10쪽 참조.

그러나 본격적인 항일운동은 무력투쟁에서 시작되었다.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 13道倡義軍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義兵들이 무력항쟁을 전개하였고, 大韓光復團(1913), 獨立義軍府(1919) 등 비밀결사체가 조직되어 국권회복운동을 펼쳤으며, 해외 한인들도 興士團(미국, 1913), 朝鮮國民軍團(하와이, 1914) 義烈團(만주, 1919), 北路軍政署(만주, 1919) 등을 조직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安重根(1909), 姜宇奎(1919), 羅錫嘯(1926), 李奉昌(1932), 尹奉吉(1932) 등의 義舉에서 보듯, 항일운동은 더욱 과격한 수단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회 전반에 崇力思想 혹은 尙武思想이 팽배하게 되었다.⁶⁶⁾ 일제의 무단통치에 우리 민족이 선택할 방향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었고,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무장투쟁으로 일제에 맞서는 것이었다.⁶⁷⁾

이렇게 볼 때, <홍장군전>을 비롯한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은 당대의 민족적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던 崇力思想 혹은 尙武思想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바, 여기서 기왕의 도덕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수호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수호전>에 대해 盜賊을 높이는 불온한 내용의 소설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사회 현실의 억압과 정치적 부패 등으로 인하여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심분 이해한다면,⁶⁸⁾ 108인의 호환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이유는

66) 이 같은 무력항쟁에서 <수호전>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羅爾綱은 明末, 淸初의 비밀결사와 관련하여, “보통 일반 志士들이 수호전으로 혁명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고 수호전의 이상을 취해서 비밀결사를 만들었는데, 이 비밀결사가 바로 天地會이다.”라고 하였다. 羅爾綱, 水滸傳與天地會, 『天地會文獻錄』, 79쪽. 이해순, 앞의 책, 258쪽 재인용.

67) 申采浩는 의열단의 위촉을 받아 집필한 「朝鮮革命宣言」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독립노선 중 외교론과 준비론을 통렬히 비판하는 한편,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직접적인 폭력으로 일제에 맞서는 것밖에 없다고 하고, 삼천만 민족이 들고 일어나 무력으로 일제와 맞서는 이른바 ‘민중직접혁명’을 강조하였다. 역사신 문편찬위원회, 앞의 책, 49쪽, 50쪽 참조.

68) 成大中. 『靑城集』 8, 장23, “孰肯以父母生育之身 樂趨於盜賊之群哉 盖亦不得已

없는 것이다. 일찍이 李卓吾本 <忠義水滸傳>(100회)이 나온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라 하겠는데,⁶⁹⁾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이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해서야 확실히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은 무예와 체력이 뛰어난 108 호한들의 義氣와 尙武思想을 그대로 본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호전> 호한들은 모두 忠義雙全을 자부하는 바, 宋江天書를 통해 “가히 테턴헝도(替天行道)헝기를 위주헝고 충의를 힘써 헝헝여 신해됨에 나라를 돕고 빅성을 보치지 말며 샤도를 헝헝지 말고 정도를 힘쓴다”⁷⁰⁾고 하였고, 宋江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오죽 원헝느니 죠당이 일죽이 은지를 느리샤 역턴대죄를 샤헝시고 초안헝시면 우리 당당히 힘을 다헝고 몸을 브려 진충보국헝여 죽은 후에 말 것이오”⁷¹⁾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세간에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홍윤성, 한명회, 원두표에 대해, 작자가 <수호전>을 차용, 모방하여 호한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까닭이 자명해지는 바, 文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忠憤과 義氣로써 强者를 꺾고 弱者를 돕는 尙武思想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不義한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함으로써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한씨보용록>의 경우, 한명회가 수나라 군사를 한칼에 무찌른 乙支文德과, 당태종의 눈을 활을 쏘아 멀게 한 楊萬春을 스승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고, 이어서 자신은 세

也 飢寒之所迫也 文法之所逼也”(민족문화추진회 편, 2000. 『韓國文集叢刊』 248권)

69) 宋代의 正史 기록에 의하면, 宋 徽宗 宣和 3年(1121)條에, “淮南의 도적 宋江 등 36명이 淮陽 지방을 어지럽히므로 조정에서 토벌군을 보냈으나 그 세력이 커서 쉽사리 평정이 안 되고, 계속 당시의 수도 東京(開封) 동쪽으로부터 양자강 일대를 휩쓸고 다녀 마침내는 州知事 張叔夜가 나서 이들을 귀순시켰다. 그 뒤 지금 越南의 方臘이 중국을 침범해 오므로 조정에서 이들을 보내 정벌시켜 크게 공을 세웠다.”라고 하였다.(『標點校勘 二十五史』 21, 宋史, 경인문화사, 1976, 112쪽 참조)

70)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41회, 323쪽.

71) 박재연 校註, 앞의 책, 제70회, 535쪽.

조를 모시고 竭忠報國하는 것으로 대장부의 사업을 삼켰다고 하였는데, 기실 실존인물 한명회는 외적을 물리친 을지문덕과 양만춘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그를 <수호전>의 호한으로 개조, 義勇無雙한 인물로 형상화하였고, 호한으로 개조된 한명회는 竭忠報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을지문덕과 양만춘에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⁷²⁾ 이처럼 독자로 하여금 민족사적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국권 회복의 의지를 다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끝으로 <홍장군전>, <한씨보응록> 등에서 살핀 <수호전>의 수용 양상이 洪命憲의 장편역사소설 <임궏정>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28년 11월 21일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몇 차례 중단을 거듭한 끝에 1939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임궏정>은 사실 기록과 함께 일화, 야사 등 다양한 전승 자료에 바탕을 두되,⁷³⁾ 삽화 위주의 서사구조와 인물 형상에서 <수호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⁷⁴⁾ 그런데 이와 같은 <임궏정>의 창작 방법 혹은 형성 과정은 이미 <홍장군전>, <한씨보응록> 등 활자본 고소설에서 충분히 보아왔던 것으로, 이 점에서 이들 활자본 고소설은 본격적으로 <수호전>을 수용하여 이룩된 선행 작품으로서 <임궏정>의 출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점 또한 <수호전> 수용이 갖는 소설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2) <한씨보응록>, 앞의 책, 90쪽 참조.

73) 『朝鮮王朝實錄』, 『寄齋雜記』, 『南判尹有事』, 『列朝通記』 등에서 임궏정에 관한 이야기를 살필 수 있다.

74) 임형택·강영주 편, <林巨正> 연구 제60주년 기념좌담, 『<林巨正>의 재조명』, 사계절, 1988. 한창엽, 「<林巨正>에 나타난 <水滸傳> 수용 양상」, 『韓國學論集』 2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171-199쪽 참조.

IV. 마무리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타호무송>을 비롯한 몇몇 활자본 고소설이 <수호전>의 삽화 위주의 서사구조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타호무송>은 <수호전> 제22회에서 30회까지에 나오는 武松 이야기를 번역, 편집한 작품으로서, <수호전>의 독서과정에서 武松이라는 인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흥미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홍장군전>은 <타호무송>과 마찬가지로 <수호전>의 武松 이야기를 수용하는 한편 <수호전> 제2회와 제3회에 나오는 魯達 관련 일부 삽화를 번안의 형태로 수용하였으며, <한씨보응록>은 <수호전> 제21회와 제37회의 일부 삽화를 그대로 수용한 데다 <홍장군전>과 마찬가지로 <수호전>에 자주 등장하는 姦通 모티프까지 차용하였다. 한편 <원두표실기>는 그 전반부 이야기가 <홍장군전>의 그것에 거의 일치하고 있어 <홍장군전>을 통해 <수호전>을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원두표실기>가 그 표제에 ‘義勇無雙’이라 하여, <홍장군전>이 표제에서 ‘義勇雙全’이라 한 것을 본받은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인물 형상을 보면, <수호전>의 호한들은 대개 신장이 7-8척이나 되는 데다 거의 초인적인 기력과 담력을 지녔으며, 또한 술을 좋아하여 4~5일에서 더러는 수십 일 동안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반면에 女色은 멀리해서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실존인물 홍윤성 등은 한결같이 財物을 탐하고 色을 즐겨 姬妾을 많이 두었고, 성품이 엉큼하고 시기심이 많았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실존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홍장군전> 등에서는 이들이 膂力이 강대하고 성질이 豪俠한 快男兒로서 술을 독으로 마시고 고기 수십 근을 안주로 하는 데다 俠義를 좋아하고 色을 멀리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바, 이 같은 허구화에서 <수호전> 호한의

인물 형상을 모방, 답습한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은 기왕의 도덕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수호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를 지니며, 아울러 엄혹한 민족적 현실에서 崇力思想 혹은 尙武思想을 고취함으로써 不義한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1930년대 洪命憲의 장편역사소설 <임궏정>의 출현에 선행 작품으로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곽정식, 「<洪將軍傳>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81, 한국
국어교육학회, 2009. 405-432쪽.
- , 「<한씨보응록>의 형성과정과 소설사적 의의」, 『어문학』 105, 한
국어문학회, 2009, 111-135쪽.
- 권순궁,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 김일근, 『諺簡의 研究』, 건국대출판부, 1986, 자료 번호 56, 57, 104.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의 존재양상과 그 특성」, 『애산학보』
28, 애산학회, 2003, 157-180쪽.
- 민관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에 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8, 한국
중국소설학회, 1998, 185-209쪽.
- 安自山, 『조선문학사』, 韓一書店, 1922.
-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6, 일제강점기, 1997.
- 우재제,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판 및 연구현황 검토」,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113-143쪽.
- 이경선, 「홍장군전 연구」, 『한국학논집』 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4,
219-248쪽.
- 이능우, 「古代小說 舊活版本 調査目錄」, 『古小說研究』, 선명문화사, 1973.
269-306쪽.
-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삼영사, 1983.
- 이여추,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4,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119-151쪽.
- 이혜순, 「중국소설이 한국소설에 미친 영향」, 『국어국문학』 68·69, 국어

국문학회, 1975, 171-186쪽.

_____, 『수호전 연구』, 정음사, 1985.

임형택·강영주 편, <林巨正> 연구 제60주년 기념좌담, 『碧初 洪命憲
<林巨正>의 재조명』, 사계절출판사, 1988, 11-80쪽.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367-407쪽.

정규복, 「<第一奇諺>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84, 73-100쪽.

한창엽, 「<林巨正>에 나타난 <수호전> 수용 양상」, 『한국학논집』 2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171-199쪽.

<Abstract>

A Study on acceptant Shape of
<Shui-hu-chuan> in classical novels with
printed book and it's novel-historical
Significance

Kwak, Jung-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cceptant Shape of <Shui-hu-chuan> in korean old classical novels with printed book and it's novel-historical Significance, for example <Taho Musong>, <Hong Changgun chon>, <Han-ssi boungnok>, <One Dupyo silgi> etc.

In our korean old classical novels with printed book, these works came into being from the effects of <Shui-hu-chuan> which is one of the four great favourite novels in China. <Taho Musong> is built up by translating the Chinese language into Korean and compiling the chapter from 22 to 30 of <Shui-hu-chuan> which had been introduced from China. <Hong Changgun chon> was formed by initiating or following <Taho Musong> and accepting the episodes of <Shui-hu-chuan> from the chapter 2 to 3. In the same way, <Han-ssi boungnok> was lined up by accepting episodes of <Shui-hu-chuan> from the chapter 21 and 37. and <One Dupyo silgi> was lined up the first half part by initiating or following <Taho Musong> and <Hong Changgun chon>.

As well as these works, in spite of negative recognition on

historical figures, imitated 108 jolly fellows of <Shui-hu-chuan> in the configuration of characters, therefore Hong younsung(홍윤성), Han Myunghwe(한명회) and One Dupyo(원두표) were reconstructed as a devoted retainers.

Finally, Concerning the novel-historical significance of acceptance <Shui-hu-chuan> in korean old classical novels with printed book. <Han-ssi Boungh nok> in the novel-history, I discussed in three points of view. in the first place, acceptance of <Shui-hu-chuan> in korean old classical novels has an important meaning such as affirmative recognition of <Shui-hu-chuan>, at the same time, it aims counteraction against the control and suppression of an immoral foreign power by inspiration the militaristic spirit, chivalrous and justice spirit. and we can consider these works's effects in the appearance of <Im kkeok chon> as a river novel.

Key Words : korean old classical novels with printed book, <Shui-hu-chuan>, novel-historical significanc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s occupation by force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6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